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다

_ 고엘 천연 염색 마스크 프로젝트

코로나-19 특집

130+130= 266 하나님의 계산법

_ 에스라 선교사

두려움과 혼돈이 편만한 이 시대에,

위로와 용기와 자유함

_ 박하경 MK

이 가족이 코로나를 버티는 방법

_ 아브라함 선교사 가족

코로나 록다운으로 세계는
인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와 수질 오염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곳곳에서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더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세상을 엿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구와 창조물들은 일종의 안식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노동을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강제로 안식일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창조물을 성찰하고 감사하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좀 더 지구 친화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재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록다운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에 대한 의존도 증진? 재생 기술에 대한 투자?
차량 배기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여러분이 이 변화의 일부가 되어 줄 수 있나요?
우리는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직장 상사,
나아가 국가의 의사 결정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때입니다.

리처드 스토리
인터서브 크리에이션케어 위원

contents

Value
번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크리에이션케어, Why? 3 _ 조샘 대표
- 09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 교회는? _ 송기태 부대표
- 12 인터서브 코리아 30주년 기념 총체적 선교 시리즈

Covid-19 특집

- 14 코비드-19 특집1 : 선교현장에서 _ 에스라 선교사
- 17 코비드-19 특집2 : 고엘 천연 마스크 프로젝트 _ 한정민 선교사
- 20 코비드-19 특집3 : 코로나의 일선에서 _ 박하경 MK
- 22 코비드-19 특집4 : 일상의 삶에서 _ 아브라함 선교사 가족
- 25 미셔널 북 _ 성육신적 교회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 인터서브 이슈

크리에이션케어, 어디부터 시작할까?

조샘 대표

이 글은 크리스천과 교회가 왜 자연환경에 대해서 생각해야하는가를 짧게 적으려 시작했었습니다. 쓰다보니 세번의 연재로 늘어났고, 주제도 “왜”에서 “어떻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게다가 이 연재 이후,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되며 생태에 대한 질문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에 대한 얘기를 깊이 다룰 수 없었던 비전공자의 실력부족 탓도 있었지만, 내용 자체가 방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를 얘기함으로 이 연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 왜 전에는 이야기가 없었나?
2. 복음 전도와 무슨 관련이 있나?

3. 무엇을 배울까?

4.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5. 무엇이 다를까?

2019년 겨울호

2020년 봄호

2020년 여름호

질문 노트.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 작은 그룹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크리스천으로 크리에이션 케어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귀하고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

는 것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비기독교인들과 동역하기 전, 먼저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정리된 방향성이 필요한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비기독교인들의 환경운동 가운데는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섞여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지나친 맹신, 동양 종교와의 이상한 접촉, 진보적 정치 성향 등등, 우리 안에 분명한 방향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비기독교인들과의 동역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크리에이션 케어와 관련된 복음의 정리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먼저 환경보호를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실천한다는건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인들의 최초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다음 구절을 생각해봅시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구절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라는 교회의 두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생각해봅시다. “교제”는 헬라어로는 κοινωνία "코이노우니아"으로 복수입니다. 이는 로마제국의 다양한 도시들 가운데서 모이던 성도들의 작은 모임, 즉 펠로우십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집에서 모였을 이 작은 공동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했던 실천과 고민들이 이 작은 모임들에서 나누어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 임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어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을 했을 것입니다. 각 도시의 상황과 직업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버섯처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있었습니다.

피조세계돌봄 Creation Care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관심있는 이들이 함께 작게 모이는데서 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도의 길입니다. 인터서브 코리아에서도 현재 작은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복음과 크리에이션 케어와의 연결점을 공부할 자료를 모으고 나누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 한글로 번역된 자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자료로 다음을 권합니다.

1. “창조세계의 돌봄” 하나님 백성의 선교 제 3장. 크리스토퍼 라이트 IVP
2. “크리에이션 케어 어떻게 시작할까?” 지금 제가 쓰는 이 연재인데, 편집해서 PDF 로 공유하고 인터서브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처음 모임이 모일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Planetwise” David Bookless. IVP. 조금 시간이 된 책이지만, 복음과 환경을 연결하는 귀한 성찰이 담긴 쉬운 책입니다. 저희 인터서브 크리에이션 그룹에서 한 장씩 번역해서 나누기 위해서 대화 중입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의 특성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독서가 끝난 후에는 관심사와 은사를 따라서 피조세계돌봄의 다양한 영역 중 하나에 집중해서 모이면 좋습니다. 수자원, 대체에너지, 유기농, 도심 농업, 동물권익, 공기, 리사이클 등등 분야는 아주 다양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연과학적 이해와 인문학적 접근의 서적들을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모여서 공통의 관심을 나누고 앞서 제시한 방향 가운데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넷.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 전체 교회와 함께 하세요

사도신경의 두번째 부분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입니다. 헬라어로는 καθολικὴν 카톨릭케인 전체적인/보편적인 ἑκκλησίαν 에클레시안 “교회” 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체적인 또는 보편적인 교회” 란 초대

교회 당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다양한 도시들 가운데 흩어진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된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적인 교회와도 연결됩니다. 즉, 신구약 성경에 적힌 신앙에 뿌리내리려 함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을 1세기 교회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피조세계돌봄에 있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한국과 세계에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다른 공동체과의 연결과 협력을 말하며, 둘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성경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실천과 성찰이 초대교회와의 연결과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피조세계돌봄 분야에서 일해왔고 동시에 함께 연합하려는 다른 크리스천 그룹들을 찾고 연결함은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그룹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건강성과 역사성을 갖는 그룹으로 네그룹을 소개합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실림” <https://ecochrist.modoo.at>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에 눈을 뜬 것은 1980년대 중반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신앙과 환경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4년전 한국에 돌아와서 기독교 환경운동이나 환경신학을 하는 분들을 찾았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해서 놀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석같은 이 단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공식출범했지만, 이 단체를 섬기는 유미호 센터장과 간사들은 삼십여년 동안 이 일을 해온 분들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지역교회들이 신앙과 환경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입니다. 40일간의 QT, 탄소 금식 주간 등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 열려 있어서 함께 연대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네트워크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농회, <https://www.facebook.com/jeongnong/>

한국에서 1976년에 시작한 정농회는 한국 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유기농업을 소개하고 생태적 세계관을 전파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일찍 시작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 온 점은 귀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성찰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드는 면에선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큼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이 분들의 신학적인 성찰이 여전히 복음적일까에 대해선 점검이 필요합니다.



로샤 Rocha, <https://www.arocha.org/en/>

1983년 영국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기독교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로샤Rocha 도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각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분권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연친화적 농장, 물 정화나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도심 환경 운동, 교회 교육, 사막 영농화, 코끼리 보호 등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 스톱트 목사님도 이 시작에 깊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벌써 4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운동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로잔 피조세계 돌봄 Creation Care 이슈 그룹.

로잔 세계 선교 운동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로잔 세계 선교 운동은 1980년 소비를 줄이고 소유를 나누는 일상의 삶, 즉 심플 라이프 simple life 에 대해서 컨설팅이션을 하고 주제보고서를 냈습니다. <https://www.lausanne.org/content/lop/lop-20> 또, 2010년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 열렸던 로잔 3차 세계 총회의 결과인 케이프타운 서약 과 행동에서 피조세계돌봄에 대한 헌신이 잘 담겨져있습니다. <https://www.lausanne.org/ko/content-ko/ctc-ko/ctcommitment-ko> 2012년에는 피조세계돌봄에 대한 자마이카 선언을 냈는데, 작지만 많은 함의가 담겨져있습니다. <https://www.lausanne.org/content/statement/creation-care-call-to-action> 또한, 이 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꾀하는 피조세계돌봄 분과 Creation Care issue group 이 있습니다. <https://www.lausanne.org/networks/issues/creation-care>

질문 다섯. 무엇이 다른가?

비기독교인들도 이미 환경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크레에이션케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은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독재적인 정치 구조에 항거하고,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을 만들고자 하며, 시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들에 크리스천들이 참여할 때 어떤 점이 다른 것 일까요? 이 질문을 일상까지 확대해 볼까요? 일을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며 자신을 돌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비기독교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가장 쉬운 답은 종교적인 색깔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모임 전에 예배를 드리거나, 목사님을 모셔다가 축도를 받거나, 교회 안에서 활동을 조직하거나, 주일이면 모이는 것 등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차이를 강조합니다. 세속의 환경운동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본 기독교적 관점이 갖는 면을 발견하고 변증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귀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들이 잘 공부하고 발견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 실제로 사회에 유익을 주고 차이를 보여줄 때 복음 전도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서구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기독교의 유입 때문이라고 증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두가지 정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마치 기독교 신앙이 모든 것에 답을 가질 수 있고, 답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창조 과학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 모두 실재를 다루지만 그 방법론과 증명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논리와 과학의 논리를 섞어서 종교를 보호하려고 했던 노력은 이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며 오히려 신앙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기독교 신앙의 긍정적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기엔,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역사 가운데 집단적으로 악행에 참여했던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직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약하고 교회는 늘 문제투성이었고, 우리 자신의 죄된 습관은 여전히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은 너무나도 큼니다. 크리스천들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먼저 알고 더 선행해야한다는 생각이 과연 복음적일까요? 우리 역시 똑같은 사람이기에 항상 한계에 직면하며 비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사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음을 인정

하고 오히려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세상의 관점과 관행을 받아들임으로 신앙에 혼합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 대전의 근본적 원인 뒤에는 식민 자본주의의 제국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자본주의에 대한 해석으로 사회주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급격히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후 WCC 의 선교적 순수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을 떠나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과 예술과 문화의 변화 가운데 성경을 새롭게 조망하고 신학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은 복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현재의 생태위기나 환경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풍성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됨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혼합주의에 이르게 되며,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줄 수 없는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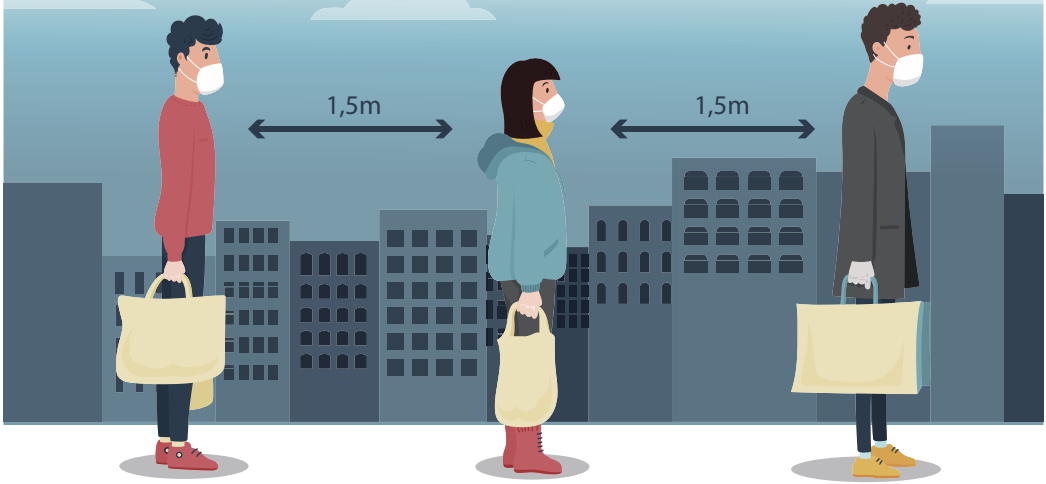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점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크리에이션 케어 등 이 시대의 문제와 죄악들을 역행해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좌절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돌파와 진보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그 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눈물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때가 될 때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이 신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하신 통치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을 함께 하는 이들과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되셨던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보이는 것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삶, 인간들과 문화의 죄악 앞에서 예수님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의 신비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삶, 현실의 한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에 완성을 주실 예수님으로 인한 미래의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든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함께 고민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신앙의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일은, 자연세계가 망가지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며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초청은 지금도 일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현장에서 알고 사랑하게 되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크리에이션케어, 어떻게 시작할까요?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실천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분을 예배하는 것을 모임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 그 분 만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하며,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 교회는?

언택트, Untact: 비대면, 비접촉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것)

최근에 지역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선 언택트의 시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혹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들을 묵상하기 좋은 때입니다.

▶ 첫 번째 관점: 교회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따른 교회의 언택트 상황에 대한 염려를 공감합니다. 또 모이는 교회로서의 축복에 대한 의미가 감소하는 것 같은 염려도 공감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우려와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모이는 교회'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개념에 좀 더 다가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을 적용해서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는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유지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모이는 교회는 구심력이, 흩어지는 교회는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회론에서는 당연히 구심력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심력 중심의 교회

론과 예배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로 잘 모이지 못하는 이 때에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심적인 신앙생활인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이는 것에 강조만 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구심력 자체를 소홀히 하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심적인 삶, 즉 성도들이 흩어져서 일상에서의 믿음의 생활이 더욱 온전해질 때 교회의 구심성이 더욱 온전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언택트 상황에서 교회가 모이지 말자는 것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각자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번 팬데믹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원심성과 구심성의 균형을 회복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택트가 보건학적 면에서는 권장할 일이지만, 성육신이 DNA인 기독교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의 대면^{contact}이 진정한 깊이에서 나오는 교제^{fellowship}였는지도 반추하게 됩니다. 또한 언택트에 대한 성육신적 반추가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두 번째 관점 : 교회의 공공성을 넓힐 기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공공성' ^{publicity}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각 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방안에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대처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성 이외에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이 반영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의 극명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공공성과 개인성 간의 가치에 따른 정책의 반영과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 시스템이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심지어는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도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이 받는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의 문제, 혹은 전체주의적 통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의미가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한동안 팬데믹으로 교회들이 기존처럼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태도는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라고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는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에 대해 관찰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는 모이는데 매우 힘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극명히 대비되는 상황 가운데, “이 두 상황이 지역 사회에는 어떤 차이를 인식하게 했는가?” 질문해 봅니다. 대부분의 지역 사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모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정부도 동일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질병을 확산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동시에 우리를 쓸쓸하게 합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들은 교회의 존재에 거의 긍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때에 가장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룹은 질병관리 본부, 의료계 종사자들 등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려운 때에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이유는 지역 사회가 생각하는 ‘공공성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교회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역 교회가 말로 공공성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말을 더욱 깊게 반추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일까요?

이때야 말로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속을 위해 존재한다는 교회의 목적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의 감염을 무릅쓰고라도 굳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서 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천 년 전 허름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거주하셨고,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거했던 것을 묵상해봅시다. 지역 교회들이 지역 사회에 함께 거하면서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인터서브 코리아 30주년 기념 총체적 선교 시리즈

1852년 인도의 소외되고 어려웠던 여성들을 향해 위해 시작되었던 복음의 발걸음이
168년이 지난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서브 코리아도 1990년 이 발걸음에 동참하여, 올해로 3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삶이 선교가 되는 Life As Mission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삶으로서의 선교”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인터서브 총체적 선교 시리즈가 연 2회 출간됩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야기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총체적 시리즈의 시작으로
인터서브 선교사님 10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첫 책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출간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믿음과 선교에 대한 가슴 뛰는 이야기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선교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좌절의 순간도 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이른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상기시킨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자두나무를 기르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인터서브의 선교적 삶을 위한 동행에 재정으로 동역해주세요.
인터서브를 후원하시면, 연 2회 발간되는 총체적 시리즈 책을 보내 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서브 후원링크로 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집

Special Issue: Covid - 19

그럼에도,
우리들의 일상 **은** 계속된다.





“130+130= 266” 하나님의 계산법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라마단 명절을 지나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확진자 수는 12만 명에 육박하는데, 검사 수를 늘리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 백신 개발만은 기다릴 수 없다며 다중 밀집 지역과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봉쇄를 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19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어지는 지역봉쇄로 하루를 벌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후원자님께서 이런 소식을 듣고는 밥은 먹을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거금을 현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총 200명의 학생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만들어 나누어 주는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신 현금도 한국에서 송금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교민 한 분이 막대한 금액의 환전을 도와주었

고, 한국 교민이 디렉터로 있는 현지 쇼핑몰에서 식료품꾸러미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학교 총장님은 이 일을 학교 직원과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부서에서 가난한 학생들의 명단을 선정하는 일을 도왔고, 학교의 경비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학교의 청소과 직원들이 식료품꾸러미를 트럭에서 내리고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만나고 돕던 학생들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손쉽게 200명 명단을 만들어 연락하면 그 친구들이 반가워 하면서 식료품 꾸러미를 받아 가리라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학생도 꽤 있었고, 식료품 꾸러미를 받아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와서 받아 가야 하는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집이 너무 멀어 못 오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모집한 명단에 중복자를 걸러내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총 130명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고, 74명에게는 생활보조 장학금 명목으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한 가지 고무되는 일은 저희 아이들도 이 일을 돕고 싶다고 자기들의 용돈을 모아둔 것을 선뜻 꺼내 놓아서 수혜 학생을 2명 더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통밀가루, 쌀, 식용유, 콩, 설탕, 비누 등을 1자루에 넣어





서 한 사람이 1자루를 가져가도록 꾸러미를 만들려고 했는데, 1인분의 무게가 총 40킬로가 넘는 바람에 2자루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수혜자가 큰 자루 하나, 작은 자루 하나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 130명에게 큰 것, 작은 것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작은 자루 6개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쇼핑물에서는 분명 큰 것 130개, 작은 것 130개 총 260개를 만들어 보냈다고 했는데, 6개가 남았습니다. 마침 힘든 노역을 도와준 청소과 직원들에게 수고비를 조금 줄 생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6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자루씩 주었더니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수고비의 몇 배의 가치가 있는 식료품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도 사람 수가 딱 맞게 남을 수가 있나 싶어 놀라웠습니다. 쇼핑물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에도 자기들은 틀림없이 계약대로 보냈다고 확인했는데 말이죠. 꾸러미를 받아간 학생 중에서도 잘못 받았다고 연락이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기적을 주셨나 봅니다. 할렐루야!



현금을 해 주신 분들과 이 일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경을 벗어날 수 있기를, 가난한 학생들이 다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식료품 꾸러미를 받은 학생 중에 무슬림과 힌두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궤**

에스라 선교사 가정은 2016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이슬람 국가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 다음 세대 청년들을 가르치며, 글을 읽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오디오 성경을 제작, 배포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신 당신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



매출이 제로 상태가 된 매장을 직접 뜯어내며 철수하던 날,
한국의 인터서브 비즈니스 선교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엘 천연 염색 마스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세상을 온통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산 17년 동안 전혀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0여 명의 공동체 식구들, 생산자로서 함께하는 40여 지역 직조가정들 그리고 외부에서 함께하는 봉제팀의 일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입국자가 말 그대로 전무했고,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는 고엘 커뮤니티의 상품 판매는 90%가 급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은 고엘에게 큰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고엘 공동체는 16년 전 저희 부부와 캄보디아 따께오 지역 출신의 썸낭 자매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메르 루주로 황폐해져 있던 나라, 일자리도 없이 낙후했던 지역 따께오. 남성들은 일거리를 찾아 주변 도시와 나라들로, 엄마들은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공장 지역에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돌아오지만,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썸낭의 꿈은 엄마들을 따께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저희 부부와 썸낭은 그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따께오는 당시에도 캄보디아 전통직조물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를 살려 보자. 이것이 바로 고

엘의 시작입니다.

‘고엘’은 친족 또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곤경에 처했던 릿의 모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지불했던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이처럼 따께오 엄마들의 고엘이 되기로 결정하고, 아내 서운정 선교사와 썸낭 자매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즈니스 선교 공동체가 캄보디아 고엘 공동체입니다.

15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여 ‘Goel Community’라는 이름으로 세계공정무역협회(WFTO)의 정식 회원사가 되었고,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수공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 도움에서 벗어나 드디어 스스로 설 수 있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고 간 전염병은 그간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렸습니다. 40여 직조 가정들과 20여 명의 봉제와 본사 직원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낙담하였습니다.

매출이 제로 상태가 된 프놈펜의 매장을 직접 뜯어 내며 철수하던 4월의 첫날, 한국의 인터서브 비즈니스 선교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엘 천연 염색 마스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주간, 절박한 상황을 이겨내려는 간절함과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설렘이 함께 했던 흥분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인터서브의 도움으로 저희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해 주신 마스크와 스카프로 말미암아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2개월의 임금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께오의 7가정에는 직조 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엘의 사역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와 따께오 지역민, 고엘 공동체 식구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정민 선교사 드림

여러분의 사랑은 고엘 공동체에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그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쏘남 자매의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고엘의 꿈은 이 전염병도 절대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작은 꿈을 하나님께서는 고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난 14년간 가난한 현지인들과 고엘의 의미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엘의 의미를 따라 돕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동역해 주셔서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엘 공동체의 사역을 펼쳐 나가실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기도하기는 고엘 공동체의 사역과 사업들이 앞으로도 캄보디아 따께오 지역민들과 이를 전 세계로 연결하는 고엘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동역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가면서, 현지에서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서브 비즈니스 전략팀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고엘 공동체의 직원 일자리 유지를 위한 천연 마스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4주동안 모아진 귀한 마음과 성원 덕분에 프로젝트는 직원들의 2개월 급여와 따께오 마을의 일거리 창출이라는 감사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돈이 편만한 이 시대에, 위로와 용기와 자유함

안녕하세요. 저는 박야곱, 하한나 파트너의 딸이자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에서 내과 수련의로 일하고 있는 박하경입니다. 최근 우리 세계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아주 센 공격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COVID-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이 시간은 참 특별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영국정부는 최소 3주 이상 더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에 더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노는 소리,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 목요일 저녁 8시마다 의료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민들이 치는 박수소리들이 그것입니다. 이 소리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었던 이 나라에 가족과 하나됨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을 포함 몇몇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많이 줄어 (아마도 감염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오히려 한기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부

활절 조용한 밤근무 중에는 부활절 계란과 부활절에 대한 전도지를 동료들에게 나눠줄 기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일정표나 충분하지 않은 방호복으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이 있기도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여러 동료분들을 보면서 도전과 힘을 얻습니다. 지난 몇 주 수요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아는 병원 직원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부나 명예 혹은 자아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겸손과 성실함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혼돈이 편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와 자유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잡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10절)

비록 우리는 약하고 잘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복음)를 전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15-16절) 진정한 순종은 낭비되지 않으니까요. (마가복음 14장 39절) 卍

박하경 MK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글을 작성한 박하경MK는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습니니다. 다행이 일주일 충분히 쉬고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MK에스터도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일주일을 쉬고 바쁜 동료들을 돕기 위해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감염환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라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엠케이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앞섭니다. 다들 건강하게 그 현장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한국에서도 코로나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3월 24일, 월요일 ~ 5월 18일, 월요일	날씨 :    
제목 : 이 가족이 코로나를 버티는 법	   

슬기로운 봉쇄생활

정부의 강력한 국가 봉쇄로 오롯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 선교사 가정의 한달 반의 기록

첫째

필립의 슬기로운 생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림다!

국가 봉쇄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은 많은 장단점이 있어서 한 마디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좋아해서, 책도 읽고, 게임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다. 우리 학교가 갑자기 3주 동안 방학을 하게 되어서, 이 시간은 나에게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 학교를 3주 동안 쉴 수 있다니! 할렐루야! 하지만 국가 봉쇄 때문에 친구들은 만날 수 없었다. 나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떠들고 노는 것을 많이 좋아해서, 그것이 조금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이 시간을 잘 보냈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믿음이 더욱 많아졌다. 지금까지, 내가 읽거나 들은 성경 구절들은 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내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가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다. 그 구절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이다. 꼭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친구들과 놀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이 시간이 좀 힘든 구석이 있었다. 두 번째는 바깥에 못 나간다는 것이다. 평소에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시간이 마냥 좋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안에 갇혀 있다보니, 바깥에 가고 싶다. 마당은 있지만, 대문 바깥에 나가서 그냥 아무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고 싶다. 그것이 그림다.

마지막으로 싫은 것은 학교다. 온라인으로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가 불안정해서 언제 끊길지 모른다.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튕겨 나가거나 렉이 걸려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짜증이 많이 난다. 다시 빨리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쳐야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차단되어서 수업 시간이 많이 재미없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봉쇄로 인한 집에 있는 시간을 좋다, 나쁘다 정할 수가 없다.

하은의 슬기로운 생활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아!!!

국가 봉쇄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은 좋은 시간 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 좋은 시간인 이유는 국가봉쇄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을 가족이랑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특별히 나는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다.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미있다. 그리고 나는 가족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그런데 좋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 나가서 놀고, 쇼핑하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좋지 않다. 그리고 힘들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랑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많이 싸우기도 해서 오빠와 동생이랑 많이 싸우게 된다. 우리 집에 마당이 있어서 좋다. 안에만 있으면 힘들드니까 마당에서 놀고, 운동하고, 뛰기도 하니까 좋다.

나는 온라인 수업이 재미있고 좋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 뒤쳐지지도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니까 좋다. 처음에는 어렵고 스트레스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진다.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새로운 것도 배웠다. 한 주 온라인 수업을 한 후, 금요일에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도 함께 본다. 드라마를 보고 해야 할 일을 다 끝내면 그냥는다. 온라인 수업은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기억이다. 나는 온라인 수업을 처음 했을 때, 기쁘고 흥분했지만 어려웠다.

앤의 슬기로운 생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내마신 그분의 손을 잡아본다

4월이지만 날씨가 좋아져 마당에 큰 송이의 장미들이 만개했다. 바쁘게 돌아가던 평상시엔 볼 수 없었던 형형색색의 장미들을 보며, 그 향을 맡으며, 기어다니는 진딧물과 개미들을 밀리에게 보여주며 낮잠을 재우던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답게 핀 장미꽃을 바라보며 예쁘다는 생각을 넘어 부럽기까지 했다. 이렇게 크고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일 년의 시간을 많은 계절의 변화를 견디며, 마침내 **본연의 목적과 의무를 말 한마디 없이 이뤄낸 장미**를 보며 나도 이렇게 꽃을 피워보고 싶다는 막연한 부러움에 사로잡혔다. 비록 내일 비바람에 꺾이거나 질지라도 오늘 온 힘을 다해 내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하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과연 나는 얼마나 알고 가고 있는가? 난 그 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필요하실 때 열매가 없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나무람에 여전히 아직 때가 아니라며, 열매가 없는 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다랐다.

그리 바쁘진 않지만, 에너지가 많지 않은 체력에 하루하루 허덕이며 사는 나에게, 이제 그만 이곳저곳에 마음과 시선과 힘을 빼지 말고 나를 보라 하신다. 나의 소리를 듣고 나와 매일 함께 걷자 하신다. 국가 봉쇄라는 조치와 함께 조용히 이렇게 다시 손 내미신다. 너무도 부끄럽게….

아빠

아브라함의 슬기로운 생활

환경, 내가 잊고 있던 구원의 대상

국가 봉쇄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책장에 놓여 있던 책 한 권을 손에 들었다. 한 번 읽고 싶었지만 책 두께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았던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환경에 관련된 것이었다. 즉 구원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너무 좁게만 생각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셨지만, 나는 그 분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했다고 해서 신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삶의 모든 면에서 그 분은 지금 이 순간도 신실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며,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신실해지기를 소망해 본다.

막내

밀리의 슬기로운 생활

오~예!!

언니랑 오빠가 학교에 안 간다.

둘 다 하루종일 나와 같이 있다니, 너무 행복해! 🍀





성육신적 교회

마이클 프로스트 지음, 최형근 옮김 / 새물결플러스, 2014

교회의 DNA로서의 성육신 :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탄생시킨 산물이다. 또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초로 존재하며, 또한 성육신적 문화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성육신이란 주제는 교회의 존재론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사명에 관한 주제이기도 하다.

성육신 vs. 탈육신 : 성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이 탈육신(excarnation)인데, 이는 “고대에 죽은 사람의 몸에서 오로지 뼈만 남기고 전체 살과 모든 장기를 제거하는 고대의 풍습을 일컫는다”(p.16). 현대 교회의 문화 안에도 탈육신적인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 보다 먼 곳에 있는 교회로 주일에 가는 것, 인터넷으로 실제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와 함께 교회를 탈육신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탈육신적 요소라고 프로스트는 지적한다(p.69-71).

성육신과 인간성 회복 : “내가 들었던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대한 가장 단순한 정의 중 하나는 ‘인간이 되는 새로운 방식을 세상에 가르쳐주는 것’이다(p.105).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구속사의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인격을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복음의 메신저로서도 성육신적으로 세상에 오셨어야 했지만 동시에 회복의 모델로서도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성 회복의 핵심 주제인 것이다.

교회의 공공성으로서의 성육신 : 기독교를 사적인 종교로 인식하는 것은 이 시대가 갖는 가장 큰 비극 중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종교적 영역에서만 전문가들이 되고 사회에서는 소외되므로 실제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회에서 벗어났다...우리가 소위 세속적인 일상생활과 분리된 교회의 의무들을 수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집단적 탈육신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한다”(p.228). 기독교는 분명히 이 사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런 공공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교회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해야 할 성육신적 존재임을 잊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의 성육신적 교회 :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교회는 마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듯 호들갑을 떨었다. 어떤 이들은 ‘전쟁 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바이러스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열심인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번의 사태를 통하여 교회의 공공성, 즉 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하여 무슨 기여를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들이 모이지 못할 때에나, 전에 열심히 모일 때에나 지역 사회에는 교회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들은 멈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구속이 교회의 존재와 역할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반추해야 한다. “탈육신된 신앙의 분명한 대안은 예수를 따르는 성육신적 표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p.147).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지역교회 선교역량강화 세미나

세미나 개최목적

세계복음화의 임차적 대리자인 지역교회가 대위경쟁상 유효적으로 수행하도록
각종교회와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가지 영역을 돕는다.

선교성화와 참여 방법 : 지역교회가 성공적으로 무리시대에 적합한 선교성취에 영연과 영연의 동역이 필요하다.
선교사들끼리 동역 : 지역교회가 기존 혹은 주된 선교사들이 소속된 지역을 넘어 연합하여 영연이 필요하다.
선교단체와의 동역 : 지역교회는 선교단체와 선교성취를 위해 협력적일 것과 신앙의 동역이 필요하다.



일시 및 장소 : 2022.7.28(일) 07:00~오전 10시 / 서울 서초구 신원로19길 11 (신원동) 3층 대우빌딩 지하 2층

주최 : 김진태 목사(현)는 선교사내역과 설립교회(ACU, GBI, OAC, KoreaNet) / 협가체 : 박근영 / 협력교회 : 새마을교회 (02-538-0892) / 김진철 목사(현)는 선교사내역과

대상 및 규모 : 새마을교회 및 협가체, 선교단체 목사, 선교단체 총회 임목원장 등 (200명~300명 정도) / 홈페이지 : www.wonjw.net

신청방법 : CRIS(온라인) 신청서 / 등록방법 : <https://forms.gle/WZ7Rexy4VX0Z8M7> / 등록 QR코드는 해당신청서(CRIS) / 문의 : 김진철 목사(010-3254-3616)

강사 소개 : 김진철 목사(현)는 대우빌딩 신원로 19길 11 (신원동) 3층 대우빌딩 지하 2층 신원교회(02-538-0892) / 박근영 목사(현)는 새마을교회(02-538-0892) / 김진철 목사(현)는 선교사내역과

새마을교회(02-538-0892) / 협가체(신원동)는 신원교회(02-538-0892) / 주은수 목사(교역)는 신원교회(02-538-0892) / 오승수 목사(교역)는 신원교회(02-538-0892)

7월 28일(일) : 07:00부터 09:00까지 2시간의 세미나를 진행하며 09:00부터 10:00까지 1시간의 식사시간을 갖는다.

선교사들끼리 동역 : 지역교회(신원동)는 신원교회(02-538-0892) / 협가체(신원동)는 신원교회(02-538-0892) / 김진철 목사(현)는 선교사내역과

7월 28일(일) : 지역교회(신원동)는 신원교회(02-538-0892) / 협가체(신원동)는 신원교회(02-538-0892) / 김진철 목사(현)는 선교사내역과

새마을교회(02-538-0892) / 협가체(신원동)는 신원교회(02-538-0892) / 주은수 목사(교역)는 신원교회(02-538-0892) / 오승수 목사(교역)는 신원교회(02-538-0892)



등록신청서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36호
2020 SUMMER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0년 여름호 통권 136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0. 6. 25.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플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1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